

2023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메시지 8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신 생명의 영의 법이 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성경: 롬 7:15—8:4, 6, 10-11, 16, 28-29, 12:1-2, 11

- I. 삼일 하나님은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완결되심으로 생명의 영의 법이 되시어 '과학적인' 법칙, 곧 자동적인 원칙과 자연스러운 능력으로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큰 발견 중 하나요, 심지어 가장 큰 회복 중 하나이다 — 롬 8:1-4, 10-11, 34, 16.**
- A. 로마서 8 장에서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로마서 12 장의 몸의 실재 안으로 안내한다. 이 법은 우리가 몸 안에서, 몸을 위하여 살 때 우리 안에서 운행한다 — 롬 8:2, 28-29, 12:1-2, 11, 빌 1:19.
 - B.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생활과 봉사를 위한 모든 열쇠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생명의 영의 법이다.
 - 1.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신격 아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으로 형태지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한다 — 롬 8:2, 28-29.
 - 2.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온갖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도록 조성한다 — 엡 4:11-12, 16.
- II. 생명의 영의 법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로마서 7 장과 8 장의 세 생명과 네 법칙을 보아야 한다.**
- A. 선의 법을 지닌 창조된 인간 생명은 우리의 혼 안에 있다. 이 법은 타고난 인간 생명, 곧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 롬 7:21-23, 창 1:31, 전 7:29.
 - B. 죄와 죽음의 법을 지닌 악한 사탄의 생명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다. 이 법은 믿는 이들의 육체 안에 거하는 죄인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 롬 6:6, 7:15-20, 23-24, 요일 3:10, 요 8:44, 마 13:38, 23:33, 3:7, 롬 3:13.
 - C. 생명의 영의 법을 지닌 창조되지 않은 신성한 생명은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있다. 이 법은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 롬 8:2, 9-10, 16, 요 1:4, 10:10 하, 14:6 상, 고전 15:45 하.
 - 1. 모든 생명은 법을 가지고 있고, 모든 생명이 법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이고 이 생명의 법은 가장 높은 법이다 — 비교 요 1:4-5, 12:24, 14:6 상, 10:10 하, 고전 15:45 하.
 - 2. 생명의 영의 법은 신성한 생명의 자동적인 원칙이자 자연스러운 능력이다. 생명의 영의 법은 신성한 생명의 자연스러운 특징이며 태생적이고 자동적인 기능이다 — 롬 12:2, 빌 2:13, 겔 36:26-27, 사 40:28-31, 히 12:2 상, 빌 4:13, 골 1:28-29, 비교 잠 30:18-19.
 - 3. 우리가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시어 하나님의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헬라어로 '조에')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하신다. 우리는 모두 적어도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인 우리의 영이 조에라는 위대한 계시를 보아야 한다 — 롬 8:10.

4.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의 혼을 대표하는 우리의 생각은 조예가 된다(롬 8:6). 또한 생명의 영의 법의 운행을 통해 조예는 우리의 죽을 몸 안으로 분배될 수 있다(롬 8:11).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 부분으로 된 우리 전 존재에서 조예의 사람들이 되어, 조예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계 21:6, 22:1-2, 7, 14).
 5. 궁극적으로, 이 생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할 것이고, 이것에 의해 주님께서 돌아오시어 우리를 다음 시대로 안내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과 우주의 중심 초점이 로마서 8장에 있다.
- D. 믿는 이들 속에 있는 이러한 세 가지 범 외에도 믿는 이의 밖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 롬 7:22, 25.

III. 주님과 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대화함으로써, 생명의 영의 법이신 내주하시고, 설치되어 계시고, 자동적이시고,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도는 마음에서 진실하게 한 말로 이뤄진다 — 롬 10:12-13, 창 13:18, 살전 5:17, 엡 6:17-18, 빌 4:5-7, 12-13, 시 62:7-8.

- A. “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송이 있다(영한 동번 찬송가 1048 장, 한국복음서원 찬송가 724 장).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며,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 — 골 2:6-7 상
- B.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께 나아가갈 때 우리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그분 앞에 올려놓고,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그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혼동되고 슬프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갈 수 있다. 우리의 내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 C. 우리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흡수함으로써,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그분의 달콤함을 맛보며, 빛과 능력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적으로 평화롭고 밝고 강하고 능력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중에도 그분께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공과를 배우게 될 것이다 — 벧전 4:10-11, 고후 2:17, 13:3.
- D.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분께 여쭙어야 한다(시 27:4).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의 모든 것을 그분께 점검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남편이신 그분과 함께 살면서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수 9:14, 대하 20:1-5, 12-27).
- E. 우리는 슬프고 침체되고 실망스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 그 문제들에 관해 그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분은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다.
- F. 우리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갖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쏟아놓을 때 주님과 우리의 친밀성이 한 단계 더 전진하며 그분을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에 그분을 친밀하게 접촉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갖는 평범한 대화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러한 접촉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란다 — 시 62:6-8, 56:8, 비교 삼상 1:15.
- G. 어떤 이가 주님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을 주님과 나눈 적이 없고, 한 번도 자신의 은밀한 일들을 주님과 대화한 적이 없다면 그는 결코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갖지 않았거나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한 것이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만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릴 수 있다.
- H.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동정하신다. 우리의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염려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때 기뻐하신다. 생명수이신 주님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반석이신 그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 민 20:8, 고전 10:4, 출 17:6, 영한동번 찬송가 248 장.

- I. 시편 102편의 제목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 여호와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하소연이 최고의 기도, 하나님께 가장 기쁜 기도일 것이다. 우리가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 롬 8:28-29.
- J. 시편 73편은 자신의 고통과 악인이 잘되는 것 때문에 자칫 실족할 뻔했던,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편 작가의 진실한 기도를 기록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한 것이 헛되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잘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온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 시 73:12-16.

- 1. 시편 작가는 악인들이 잘되는 것에 관해서 느꼈던 당혹감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얻었다. 먼저, 하나님의 성소 곧 그분의 처소는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엡 2:22), 또한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이다(딤후 3:15).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교회 집회에 가야 한다.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시 73:17).
- 2.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주님과 정직히 대화하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결국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 빛 비춤을 받았다.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뭍이십니다.” — 시 73:25-26.
- 3. 추구하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누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궁극적인 갈망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고 얻는 것이다 — 빌 1:19-21 상, 3:7-8, 사 43:7, 고전 10:31, 6:20, 벧전 4:11, 엡 3:16-21.

IV. 우리가 영의 내적 감각에 주의할 때,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발견된다. 이 말씀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영적 체합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다 —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 A. 생각을 육체에 두는 것은 육체 편에 서고, 육체와 협력하며, 육체에 찬성하는 것이다.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은 영을 주의하고, 영의 편에 서며, 영과 협력하고, 영에 찬성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 말 2:15-16.
- B. 영의 내적 감각에 주의하여 생명과 평안의 내적 감각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유일한 움직임을 위해 몸의 머리이신 주님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의 복음 봉사에서 그리스도의 포로였다.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그는 자신의 바깥 환경에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안식’(고후 2:13)이 있는지의 여부에 통제받았다. 그의 존재에서 그의 영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었으며, 그는 그의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움직이고 인도받았다(고전 2:15, 롬 8:16, 고전 6:17, 고후 2:12-14, 7:5-6).

V. 궁극적으로, 내주하는 자동적인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림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사는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며, 그 목표는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 롬 8:2, 28-29, 12:1-2, 11:36, 16:27, 빌 1:19, 비교 갈 1:15-16, 2:20, 4:19, 26-28, 31, 계 21:2, 9-10.